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5호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신사업vs내실강화
K-뷰티 두 강자
사업전략 차별화
L1



유통가
서브컬처 행사
마니아 고객 확보
L2

“AI, 도구 넘어선 지성체… 역사의 변곡점서 인식 넓혀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

임 현 서 대표변호사





▲임현서 변호사가 ‘30일 꽁짜 AI챌린지’의 홈페이지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AI를 향한 마음을 포즈로 표현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임현서 변호사가 화답하고 있다. /김보민 기자

홈페이지 제작부터 소송업무 까지
AI 모델 활용해 업무 전반에 적용

AI 활용에 따라 경험의 격차 벌어져
빠른 발전속도 맞춰 직접 사용해봐야
새 기능 발굴하며 업무 아이디어 찾아

단순 기술 넘어선 지성… 신뢰도 높아
지성·논리 필요한 영역, AI 무대 될 것
AI 대한 인식 높이는 일 ‘시대적 사명’

임현서 변호사는 인터뷰 중에 인공지능(AI) 브라우저로 전자소송 문서를 불러와 검토·승인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그는 “원래는 창을 띄우는 데만 20~30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AI는 그에게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다. 임 변호사는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AI를 돌린다”고 말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업무를 이어가며 AI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도 이미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소송 업무에만 그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의 홈페이지도 AI를 활용해 만들었고, 사내 보고서 작성에도 AI를 쓴다. 홈페이지 제작과 보고서 작업처럼 직접 해보는 일이 늘면서 AI를 업무 전반에 적용하게 됐다.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임현서 변호사는 AI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회사의 대표로 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로스쿨생들의 인턴 생활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 ‘굿피플’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피의게임3’,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더 로직’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자작곡 ‘엄마 카드’를 불렀다. 지금도 유튜브 채널 ‘이면서다’를 운영하며 최근엔 AI 강의도 하고 있다.

그는 로펌에서 일하다 지난해 독립해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직원 1명으로 시작해 1년 만에 직원 30명 규모로 조직을 키웠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0억원이다.

◆“직접 써봐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된다”



임 변호사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경험의 격차가 크다고 봤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업무에 적용할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진을 가지고 AI로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광학문자인식(OCR)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사진 속 글자를 읽어내는 기능처럼 일상적인 작업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AI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임 변호사는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크다”며 지금을 “시대적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AI에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는 감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AI를 부려먹는 직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며 “AI를 부려먹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 AI를 연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이 바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쓰다 보면 기능과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

임 변호사가 AI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기술 발전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컸다. 올해 6월께 AI가 자신의 지성보다 나을 수 있겠다고 느꼈다. 그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코딩과 영상, 이미지 작업 등을 직접 시켜보며 변화를 살폈다. “6개월 전에는 제가 이 모델이 이 정도로 향상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그게 돼?’ 했던 게 다 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기능을 직접 시험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인식 차이도 크다고 봤다. 대부분의 자기 업무와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모델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직접 사용해보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강조했다.

AI를 써보는 과정 자체도 그에게 원동력이 됐다.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AI가 새로운 걸 계속 하게 해주는 것들이 재밌어서 어디까지 되는지, 이용하다 보면 계속 기능을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무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AI의 발전은 임 변호사 자신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다. 임 변호사는 서면 작성 과정에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보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쓸모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고 했다. 서면 실력에 자신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길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AI를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는다. “AI에 대해서는 기술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지성이다”라며 “지성체로서, 인격체로서의 실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사실 이미 지성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뢰의 방향도 AI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인간보다도 인공지능을 더 신뢰한다”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도 그렇다. AI는 인지적 왜곡이나 개별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I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텍스트로 축적되지 않은 정보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AI가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공부를 해서 뭔가를 써야 한다고 하면 이제는 AI보다 더 잘 쓸 수가 없다”며 “특히 낯선 분야는 더 그렇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계속하더라도 업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상식에 맞춰 일을 이어가기보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고 절차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일을 계속해서 할 거면 시대정신에 맞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해체하고,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I가 바꿀 관계와 사회 규범

임 변호사는 AI가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이유와 사회의 규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려 사람들이 모였고, 집단생활 속에서 규범과 윤리가 형성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뭉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AI의 발전이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와 규범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모델의 윤리적 편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도덕적인 편향이 있는 모델들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AI가 선을 넘지 못하는 애매한 영역은 사람이 맡고, 고도의 지성과 논리가 필요한 영역은 AI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사람들의 AI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꼽았다.그는 “AI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높이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가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I를 제대로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위험성과 가능성에 아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스레드·엑스·네이버 블로그)에도 AI 관련 소식을 올리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금이 인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라며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이 맞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후라도 역투’ 삼성, KIA 꺾고 2년 만에 KS행… ‘맹타’ 김지찬, 5차전 MVP /사진 뉴시스

▲골대 때린 이강인 ‘평점 6.4점’…슈팅 2회·패스 성공률 91%

▲‘MLB 도전’ 노시환에 美 매체 “3루수 부족한 시장서 가치 높일 수도”

▲쇼트트랙 최민정, 새 시즌 월드투어 두 대회 연속 여자 1000m 정상

▲정지민, 월드클라이밍 군산 아시아 시리즈 스피드 우승…개인 첫 금메달

▲출판계에 닥친 AI발 위기…“산업 기반 무너뜨릴 수도”